

63개 미국 국립공원 모두 방문한 할머니와 손자



▲ 마지막 방문지인 사모아 국립공원에서 인증서를 받은 할머니와 손자. 사진=Instagram(grandmajoyroadtrip)

7년 전 미국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 방문을 목표로 여행을 시작했던 할머니와 손자가 드디어 여행의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일 조이 라이언(93)과 그녀의 손자 브래드 라이언(41)이 미국령 사모아 국립공원을 마지막으로 63개의 미국 국립 공원을 모두 방문하는 일정을 마치고 인증서

를 받았다. 이번 방문으로 조이 라이언은 미국 국립공원 전부를 방문한 최연장자 기록도 세웠다.

브래드는 할머니 조이와의 여행을 기록하기 위해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grandmajoyroadtrip)에 “할머니의 로드 트립 운전석에 앉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이었다.” 라며 “우리는 노화의 한계와 재정적·물리적 제약 그리고 전염병을 뛰어넘었다.” 고 여행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둘의 여행은 “살면서 여행을 가 본 적이 별로 없어 후회된다.”는 할머니의 말을 들은 손자의 주도로 시작됐다. 당시 손자 브래드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고펀드 미(GoFundMe)’에서 할머니의 목표를 공유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금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5년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걸쳐 있는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미국령 사모아 방문으로 그 여정을 마무리했다.

할머니와 손자는 케냐 방문을 다음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차 거부하며 택시에서 1박2일 버틴 부녀

중국에서 택시기사와 싸워 1박2일간 하차를 거부한 부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평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는 저장성 항저우의 택시 기사 왕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왕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호출을 받았으나,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 차를 세우기 어려움을 확인하고 20m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고객을 기다렸다. 이에 차량을 호출한 위 모 씨 부녀는 차에 타자마자 자신들이 호출한 장소가 아니라며 항의했다. 왕 씨가 호출을 취소하려 하자, 위 씨 부녀는 호출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놓으라며 차에서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왕 씨는 결국 자기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퇴근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왕 씨가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때도 이들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위 씨 부녀는 1박2일 동안



▲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1박 2일 간 하차를 거부한 중국 부녀. 사진=shine.cn

차에 머물며 용변을 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왕 씨는 차를 몰고 인근 파출소로 향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부녀는 경찰의 설득에도 하차를 거부하다가 이날 오후 10시께 강제로 차에서 끌려 나왔다. 경찰은 이들에게 행정 구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에베레스트 27번 오른 남자



▲ 세계 최고봉을 무려 27번이나 오른 카미 리타. 사진=thehimalayantimes.com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무려 27번이나 등정하며 세계 기록을 작성한 사람이 있다.

지난 17일 히말라얀타임스 등 네팔 매체는 네팔 산악인 카미 리타(53)가 에베레스트(해발 8,848m)를 27회 등정하는데 성공해 기존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리타는 이 날 아침 8시 30분경 베트남 등반대를 가이드하면서 27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한 번도 등정하기 힘든 세계 최고봉을 무려 27번이나 올랐지만 그의 이름이 생소한 것은 직업이 세르파이기 때문이다. 유명 산악인에 가려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히말라야 등산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존재가 바로 세르파다.

이번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으로 리타는 세계 최초이자 최다의 기록을 모두 갖게 됐다. 그가 처음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선 것은 24세 때인 1994년이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고산지대에서 태어나 살아온 덕분에 리타는 고소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리타는 지난 달 베이스캠프로 향하면서 “이 기록은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한 것이 아니라 가이드로 일하는 동안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 크라운 (PFM) \$500**
- 잇몸치료 \$200부터**
- 틀니 \$1500**
-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Free 임플란트 상담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